

『五經文字』 부수 분류의 표준과 소속자의 귀속 체제

- 余嘉錫의 『五經文字』 부수 평가에 대한 반박*

이 경 원
(한양대학교)

1. 緒論

『五經文字』와 『干祿字書』는 唐代 字樣學의 대표 저작이다. 『干祿字書』는 과거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顏之推 일가의 문자관이 구현된 자양서이며, 『五經文字』는 경전의 국가 표준본을 확립하는데 字樣¹⁾ 근거를 제시한 정부 주도하에 편찬된 자양서이다. 『干祿字書』는 顏氏一家의 時宜的인 문자관이 담겨 있으며, 또한 당시 詩歌 제작의 편리함을 위해 四聲分類法을 채택하였다. 『五經文字』는 상대적으로 학술적이며 보수적인 문자관을 적용한 당시 정부의 공식적인 문자 표준화 정책이 반영된 자양저작이다. 이에 『五經文字』는 정통성을 추구하여 기존 『說文』·『字林』·『玉篇』처럼 부수 분류법을 채택하여 3,250자를 160부로 분류 수록하고 있다.

『五經文字』160부는 小篆 체계를 적용한 『說文』540부에 비해 부수 수량이 간소화되었다. 楷書 자형에 적합한 부수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수를 줄이고 합병한 결과이다. 두 자서는 공히 부수 분류법을 채택하였고,

* 이 논문은 2012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2-G).

1) 字樣이란 楷書 자형의 본보기가 되는 자형을 말한다. 즉 字樣은 정자 표본·정자 샘플 자형·표준 자형 등으로 이해하면 무방하다.

부수 배열 또한 ‘據形繫聯’ 즉 부수 자형의 연관성에 따라 부수를 배열하고 있다. 이는 부수 수량을 제외하고는 『五經文字』와 『說文』의 부수 배열·부수 분류 등에서 전승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五經文字』의 부수 배열은 표면적으로는 ‘據形繫聯’의 형식을 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형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변이된 후 편방과 部件²⁾의 상호 혼용이 발생하는 부류를 연이어 배열한 ‘以類相從’의 체례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자형이 근사한 편방이 변이된 후 오용 내지는 혼용상황을 제한하려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부수 분류 역시 변이가 일어난 편방이나 부건을 부수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변이가 일어난 편방이나 부건으로 구성된 글자를 소속자로 귀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존 부수의 소속자가 주로 동일한 형부를 가진 글자로 구성된 것이라면, 『五經文字』부수의 소속자는 형부·성부·부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변이가 발생하였다면, 모두 그 부수에 귀속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부와 수록자 귀부 체례는 겉보기에는 정통에 위배되고 전혀 규범적이지 않은 것으로 비춰진다. 이에 余嘉錫은 『四庫提要辨證·卷二·經部二·五經文字』條³⁾에서 『五經文字』분부와 귀부체례에 대하여 혹평을 가하고 있다.

본고는 『五經文字』부수 분류의 표준·소속자의 귀속 원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정리를 통해 余嘉錫의 『五經文字』부수 방면의 평가에 대하여 해명함과 아울러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II. 『五經文字』부수 분류의 표준

『五經文字』부수 분류의 표준은 무엇인가? 160부 목록을 무엇에 근거하여 정하였으며, 소속자는 어떤 표준으로 해당 부수에 귀속시켰는가? 여기서 『五經文字』의 편찬 과정·부수 수량과 分部의 표준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部件은 한자 자형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로 더 이상 해체할 수 없으며, 편방보다 더 작은 단위이다.

3) 余嘉錫『四庫提要辨證』(pp,108-109), 中華書局香港分局, 1974年3月.

1. 『五經文字』의 편찬 과정과 부수 수량

『五經文字·序例』에서 편찬 연유와 과정 그리고 부수 수량의 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卒以所刊，書於屋壁……然以經典之文六十餘萬既字帶惑體，音非一讀。學者傳授，義有所存，離之若有失，合之則難並，至當之餘，但朱發其榜而已……乃命孝廉生顏傳經，收集疑文互體，受法師儒，以為定例。凡一百六十部，三千二百三十五字，分為三卷(마침내 교정을 마친 경전문자를 (국자감) 벽에 필사하였다……그러나 경전의 60여 만자나 되는 문자는 자형상 이체자가 존재하고 자음도 하나로만 읽히지 않고, 학자들이 전한 경서는 한 개인의 학설만 존재하여,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자니 뭔가 부족한 감이 있고, 또 받아들이자니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다. 참작하여 확실한 결론에 이르면 그 글자 옆에다 붉은 색으로 써 넣었다……이에孝廉출신 국자감 생도인 顏傳經에게 명하여 의구심이 들고 변별하기 어려운 이체자를 전문가에게 가르침을 구하여 체례를 정하였으니, 무릇 160부, 3,235자를 세 권으로 나누었다.)⁴⁾

또 劉禹錫 『國學新修五經壁本記』에서 張參 『五經文字』의 경전 표준본의 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初，大曆中名儒張參爲國子司業，始詳定五經，書於論堂東西廂之壁。辨齊魯之音，取其宜；考古今之文，取其正(애초에, 大曆년간에 유명한 경학자인 장삼이 국자사업이 되어, 비로소 오경본문을 상세하게 확정하기 시작하여 (국자감) 講學장소인 明倫堂의 東西廂(본체의 동서 양쪽에 있는 걸채)의 벽에다 필사하였다. 齊魯의 음을 변별하여 그 올바른 음을 취하였고, 고금의 자형을 고찰하여 그 정자 자형을 얻었다).

위 두 문장을 통해 『五經文字』는 國子監 東西廂의 벽에 필사된 경전문자 60餘萬字 가운데 形音義 방면에 문제가 있는 글자를 추려서 편찬하였고, 수

4) 張參『五經文字·序例』(pp.1148-1151), 鮑廷爵『後知不足齋叢書』初編第二函.

록자의 선집 범위는 경전문자에 국한되었으며, 문제가 발생한 글자에 대하여 국자감 학자들의 최종 감리로 올바른 자음과 자형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235⁵⁾자를 160부로 분류하고 3권으로 엮는 편찬 체계를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五經文字』의 일련의 편찬 과정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國子監 講學장소인 동서 양쪽의 곁체에 남북으로 들어선 明倫堂의 벽에 12經의 경전본문을 서사하였다. 이 경전본문은 경전문자의 표준본이며,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국자감생의 필수 참고자료로 壁經이라고 하였다.

제2단계, 경전본문 가운데 편방이 변이되어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는 자형이나, 표준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결집하여 가장 정확한 결론을 朱筆로 해당 글자 옆에 부기하였다.

제3단계, 편방이 변이되어 자형이 정상이 아닌 이체자 가운데, 같은 편방을 가진 글자(본서 부수의 편방과 같은 글자)들에 대하여는 붉은 색으로 표기하고 각종 증거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그 목적은 문자학 지식이 일천한 독자들의 의혹과 오인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제4단계, 벽경 정자 옆에 朱筆로 부기된 形音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모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제정한 체례에 따라 160부로 나누어 『五經文字』를 편찬하였다.

이처럼 『五經文字』는 국자감 벽경의 부산물로, 경전문자의 각종 오류를 분석하여 경전 표준본을 확정하는 기초자료를 구축한 저작이다.

2. 『五經文字』부수 분류의 표준

『五經文字』부수는 변이가 발생하는 偏旁이나 部件에 의거하여 分部를 하고 있다. 부수 분류의 표준에 대하여 『五經文字·序例』에서 다음과 같이 언

5) 『五經文字·序例』에서 : “凡一百六十部, 三千二百三十五字, 分爲三卷.” 라고 하여 3,235자를 수록하였다고 하였는데, 現傳本에 수록된 표제자의 총 자수는 3,250자이며, 이체자인 重文을 제외하면 2,976자의 개별자를 수록하고 있다(李景遠『張參五經文字之研究』,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1990年2月).

급하고 있다.

近代字樣，多依四聲，傳寫之後，偏旁漸失，今則采『說文』・『字林』諸部，以類相從，務於易了，不必舊次。自非經典文義之所在，雖切於時，略不集錄，以明爲經不爲字也。其字非常體，偏有所合者，詳其證據，各以朱字記之，俾夫觀省，無至多惑(요즘 字樣저자들이 대부분 四聲에 의거(한 분류법을 채택)하였는데, 필사를 거치면서 편방이 점차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 『說文』・『字林』의 각 부수를 채택하여 편방의 類別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배열하였는데, 간명하고 쉽게 인지하게 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說文』・『字林』의 기존 순서를 꼭 따르지는 않았다. 경전의 文義와 관련 없는 글자는 비록 긴박하게 교정해야 할 자형이라도 생략하고 수집하여 엮지 않음으로써(이 책이) 경전문자 정리를 위해 편찬한 것인지 일반문자의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경전문자 가운데 오류가 있는 자형이 편방끼리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 그 증거를 상세하게 밝히고 주필(붉은 글을 쓰는 붓)로 명기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미혹되지 않게 하였다.)

위 문장에서 나타난 부수 분류의 표준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說文』・『字林』의 체례를 계승하여 편방 분류법을 채택하였다. 둘째, 부수 배열 체례는 『說文』의 ‘據形繫聯’을 온전하게 계승한 것이 아니고, 『五經文字』특유의 ‘以類相從’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편방의 類別에 의거하여 한곳에 모아서 연이어 배열하였다는 것이다. ‘편방의 類別’이란 ‘자형의 연관성으로 변이가 발생한 偏旁(이나 部件)’을 가리킨다. 즉 부수 배열은 ‘자형이 근사하여 변이된 후 오용되거나 서로 혼용되는 偏旁이나 部件으로 설립된 부수’를 연이어 배열한 것이다. 예를 들어 『五經文字』上卷에 ‘1木部’・‘2手部’・‘3才部’・‘4牛部’・‘5宀部’・‘6羊部’・‘7米部’・‘8采部’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가운데 ‘木’・‘手’・‘才’・‘牛’・‘宀’ 등 다섯 부수⁶⁾는 모두 ‘扌’형으로 변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또 ‘宀’・‘羊’, ‘羊’

6) 〈北魏·元倪墓誌〉에 寢이 𠂔으로, 〈唐·馬君起墓誌〉에 牲이 牲으로, 〈唐·盧子晞妻鄭氏墓誌〉에 寐가 寐로 각석되어 있다. 『龍龕手鑑』宀部에 寢의 정자형

· ‘米’, ‘米’ · ‘采’ 7등 부수가 상호간에 편방이 혼용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셋째, 변이된 자형이 서로 편방이 상합하면 상세한 증거를 찾아서 주필로 명기하였다고 하였다.

『五經文字』는 國子監 講論堂의 東西廂에 서사된 경전본문 60만자 가운데 形音義에 대하여 朱筆로 附記한 註釋을 저본으로 편찬된 것이다. 唐代의 壁經은 張參을 비롯한 몇몇 학자에 의해 확정된 경전 표준본을 국가감 벽에다 서사한 것이다. 그리고 변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편방에 대하여 붉은 색으로 표기하는 한편, 상세한 증빙자료를 인용하여 편방의 오류를 지적하고 정확한 편방을 제시하였다.

『五經文字』부수 분류의 표준은 바로 변이가 발생하여 오용되거나 혼용되는 편방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 변이된 편방 상호간의 혼용 상황을 감안하여 부수 배열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五經文字』부수 분류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벽경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띤 문헌 양식이다. 壁經이 서사된 뒤, 경전본문 가운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글자에다 각종 形體、音韻、訓詁學 정보를 부기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참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집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체례에 의거하여 『五經文字』를 편찬한 것이다. 특히 해서 자형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편방과 부건의 변이에 특히 유의를 하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五經文字』분부의 가장 주된 표준은 변이된 편방과 부건의 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자형의 오류는 바로 편방과 부건의 변이에서 기인한다. 서로 다르거나 비슷한 자형이 동일하거나 근사하게 변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류와 상호 혼용이라는 비정상적인 用字현상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바로 잡고 표준 자형을 제시하는 학술 조류가 자양학이다.

해서 자형의 오류를 방지하는 관건은 바로 편방과 부건에 대한 변별과 정

이 糴로 쓰여 있다. 즉 糴이 糶와 糶로 변이된 경우이다.

- 7) 『五經文字』羊部에서 : “羝, 丁迷反. 詩又作羝.”라고 하였고, 采部에 수록된 糶의 올림자가 糶로 쓰여 있다. 당시에는 采편방이 米로 변이된 경우가 흔하였다. <漢·費鳳別碑>에서 釋자가 糶로 각석되어 있다. <魏·比丘法僧造象>에 釋이 糶로 각석되어 있다. 즉 羊·米·采이 변이된 뒤 편방이 서로 혼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정에 있다. 따라서 『五經文字』는 상기한 원인과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부수 표준을 확립한 것이다.

위에서 예로 거론한 ‘1木部’·‘2手部’·‘3才部’·‘4牛部’·‘5宀部’ 등 ‘扌’로 변이되는 소위 ‘扌偏旁類’가 모두 이런 기획된 체례에 의해 分部되고 배열된 것이다. 이 외에 ‘29肉部’·‘30月部’·‘31舟部’·‘32丹部’ 등 ‘月’로 변이되는 ‘月偏旁類’, ‘37++部’·‘38+部’·‘39辛部’·‘40+部’·‘41竹部’·‘42革部’·‘43鬲部’ 등 偏旁이나 部件의 위 부분이 ‘++’·‘+’로 변이되는 ‘++偏旁類’, ‘108欠部’·‘109欠部’·‘110欠部’·‘111欠部’·‘112欠部’·‘113又部’ 등 편방이 ‘欠’으로 변이되는 ‘欠偏旁類’ 등이 모두 『五經文字』分部의 기획된 체례가 적용된 것이다. 이런 변이된 偏旁類를 기준으로 分部하고 排列하여 변이 편방이나 부건으로 인한 문자의 오용과 혼용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五經文字』의 부수 분류와 배열에 설계된 어문규범화 시스템인 것이다.

이렇듯 자형 규범화를 위한 초점을 편방과 부건에 집중시키다보니 부수 건립과 분류에 있어서 形符、聲符、部件 등을 구분하는 것은 부차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余嘉錫이 『五經文字』부수 분류 기준에 대한 비평은 張參에게는 사실상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것일 수도 있다.

3. 聲符에 의거한 分部

『五經文字』부수 분류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聲符를 부수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를 최초로 지적한 학자는 余嘉錫이다. 余嘉錫은 『四庫提要辨證·卷二·經部二·五經文字』條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그 문자학의 정상궤도를 벗어난 부수 체계에 대하여 혹평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과 오해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Ⅲ. 『五經文字』수록자 부수 귀속 체례

『五經文字』는 3,250자를 160部に 나누어 귀속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체례와 방식에 의거하여 수록자를 歸部(부수에 귀속)시켰을까? 이에 대하여 余嘉錫은 혹평을 가하고 있다. 文獻學 辨證의 대가인 余嘉錫은 『四庫提要辨證·卷二·經部二·五經文字』條에서 『五經文字』부수 분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參之爲是書，意在辨識群經諸字之讀音，及經典相承隸省隸變，與說文字體之異同，既病舊日字樣，以四聲分字，偏旁傳寫訛替之多，乃依『說文』·『字林』，分部以攝字，其部目固與『說文』不盡相同，以偏旁之分析，多與六書諧聲之旨不合，誠可異也。夫『說文』之分辨諧聲凡一部之字，皆以部首爲形，而『五經文字』則不盡然。蓋一部之字，有以部首爲形者，亦有以部首爲聲者，與木部手部，皆以木手爲形矣，以才部且部，則皆以才且爲聲。羊部羝羴洋翔諸字同屬一部矣，而羝羴以羊爲形，洋翔則以羊爲聲，是匪特與說文不合，抑且有乖分部之意，幾令人無由索檢。至其踏駁尤甚者，若廿部收董蕪燕庶黃諸字，十部之收博協肸屯屯諸字，割裂偏旁，凌轢統緒，則更不足爲訓。昔劉夢得爲〈國學新修五經壁記〉，嘗稱參爲明儒，而其不講六書，猶且如是，則有唐一代字學之荒疏，亦可知矣。(張參이 이 책을 지은 것은 群經의 자음과 경전에서 널리 사용되는 隸書의 생략된 자형과 隸變 후의 자형이 『說文』자형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등을 변별하는데 그 뜻이 있다. 이전 字樣書가 四聲으로 수록자를 분류하면서 偏旁이 필사과정에서 잘못 변이된 것이 많음을 나무라며 이에 『說文』·『字林』에 의거하여 부수로 나누어 수록자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그 부수 목록은 진실로 『說文』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편방에 대한 분석은 육서 형성의 원래 뜻과 다른 점이 많으니 정말 기이한 일이다. 무릇 『說文』의 형성에 대한 분류 변별은 동일 부수의 수록자는 모두 부수를 형부로 의거하였는데, 『五經文字』는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무릇 동일한 부수의 수록자는 부수를 형부에 의거한 것도 있고, 또 부수를 성부에 의거한 것도 있다. 木部和 手部는 모두 木과 手가 形符인데, 才部和 且部는 모두 才와 且가 聲符이다. 羊部の 羝羴洋翔등과 같은 글자는 같은 부수에 소속되어 있는데, 羝羴은 羊 편방이 형부이고, 洋翔은 羊 편방이 형부가 되는데, 이는 더더군다나 『說文』과 부합하지 않

으니, 더구나 괴이한 分部의 의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어디서 찾아야 할지 갈피를 못잡게 한다. 더욱 엉망진창인 예는 卅部에 수록된 董歎燕庶黃, 十部에 수록된 博協胙率屯 등의 글자처럼 전체 편방에서 일부를 잘라낸 것으로 실마리가 완전히 배제된 것과 같은 것은 더욱 더 언급할 여지도 없다. 옛날 劉夢得(즉 劉禹錫)이 〈國學新修五經壁記〉에서 일찍이 張參을 名儒라고 칭하였는데, 六書를 중시하지 않은 것이 이지경이니 唐나라 시기의 문자학이 얼마나 황폐하였는지 알 수 있겠다⁸⁾.

위 문장에 나타난 余嘉錫의 『五經文字』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五經文字』의 부수목록은 『說文』·『字林』에 의거하였지만 완전히 상호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五經文字』의 分部 표준이 『說文』과 같지 않음을 비평하고 있다. 『說文』이 形符를 부수로 내세운 것과 달리 『五經文字』는 形符에 의거한 부수를 세운 것 외에, 聲符에 의거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동일 부수에 형부에 의거한 것과 성부에 의거한 것이 혼재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런 체례는 『說文』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으로 張參『五經文字』分部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비평을 가하고 있다.

셋째, 편방을 다시 재분할하여 부수를 내세운 것도 있는데, 이는 완전히 실마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입에 담을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즉 部件을 내세워서 부수로 삼았다는 것을 비평한 것이다.

다섯째, 상기 사실들을 종합하여 劉禹錫이 〈國學新修五經壁記〉에서 張參을 名儒라고 치켜세웠는데, 名儒인 張參의 문자학 방면의 지식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봐서 唐代 문자학의 수준이 형편없음을 가늠할 수 있다고 혹평을 가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五經文字』分部의 표준은 수록자의 귀부체례와 동일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五經文字』는 3,250자를 어떤 표준에 따라 160부에 귀속시켰을까? 여기서 『五經文字』에 나타난 수록자의 귀부 체례를 정리하면 ①形符에 따라 해당 부수에 귀속시킨 체례, ②聲符에 따라 해당 부수

8) 余嘉錫『四庫提要辨證』(pp,108-109), 中華書局香港分局, 1974年3月.

에 귀속시킨 체례, ③形符·聲符에 따라 해당 부수에 귀속시킨 체례, ④部件에 따라 해당 부수에 귀속시킨 체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形符에 따라 해당 부수에 귀속시킨 체례

『五經文字』에 설립된 대부분의 부수는 『說文』처럼 形符에 의거하였다. 즉 해당 부수에 소속된 글자는 모두 形符에 기준하여 歸部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1木·2手·4牛·9人·10彳·11辵·12廴·13走·14止⁹⁾·16宀·17宀·18穴··20勹¹⁰⁾·21冂·22冂·23目·24鼎¹¹⁾·25鼻¹²⁾·26冎·28貝·29肉 등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부수는 모두 形符에 따라 수록자를 분류 귀속시키고 있다. 이는 『說文』을 비롯한 정통 자서가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체례이다.

2. 聲符에 따라 해당 부수에 귀속시킨 체례

余嘉錫은 『四庫提要辨證·卷二·經部二·五經文字』條에서 『五經文

- 9) 『五經文字』止部에 수록된 글자는 歷·歸·𨾏·此·步·歲·正·定·乏·堂 등이다. 이 가운데 歷·歸·𨾏·此·步·歲·正·乏·堂 등은 모두 『說文』과 『玉篇』의 止·正·此·之·步部에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모두 止를 구성요소로 한 부수이다. 유일하게 定은 宀부에 수록되어 있는데, 大徐本『說文』宀部에서 : “定, 安也. 从宀从正”라고 하였고, 段注本『說文』宀部에서 : “定, 安也. 从宀正聲”라고 하였다. 즉 大徐本에 따르면 회의자이며 正은 止로 구성되었으므로 형부에 의거하여 歸部한 것이고, 段注本에 따르면 正은 宀부이므로 宀부에 의거하여 歸部한 것이 된다. 본고에서는 大徐本본에 근거하여 『五經文字』止部를 형부에 의거하여 해당부수에 귀속시킨 체례로 간주한다.
- 10) 『五經文字』勹部에 冡匈匍匍包匍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冡匈匍匍 등이 『說文』勹部에, 包는 包부에, 匍은 車부에 소속되어 있다. 『說文』匍部에서 : “匍, 圓圍也. 四千人爲軍, 从車, 从包省. 匍, 兵車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匍자의 勹는 形符이다.
- 11) 『五經文字』冎部에서 : “冎, 莫益反. 與冎同, 官名, 見『周禮』.”라고 하였고, 또 鼎部에서 : “冎, 模狄反. 與冎同.”고 하여, 각 자형이 다른 부수에 각각 올림자로 올라있다.
- 12) 『五經文字』鼻部에 劓馱馱馱가 수록되어 있다. 馱는 소전 馱의 隸變자형이다. 劓는 『說文』刀部에서 : “劓, 刑鼻也. 從刀鼻聲. 劓, 鼻或從鼻.”라고 하였는데, 馱의 鼻는 形符이다.

經典相承隸省. 凡從戔者放此. 戔音才.”라고 하였다. 즉 才部는 聲符에 의거하여 分部한 부수이며, 또 才部에 戔을 성부로 구성된 글자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는 才部和 戔部가 한 부수 안에 합병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才部和 戔部를 합병하고 才部를 대표 부수로 내세울 수 있었을까? 이는 『五經文字』上卷才部에서 “戔戔, 上『說文』; 下經典相承隸省. 凡從戔者放此. 戔音才.”라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戔音才’라고 하였는데, ‘戔¹⁶⁾’는 ‘才’와 ‘戈’로 구성된 ‘才’의 得聲字이므로 두 글자는 당연히 同音이다. 이것이 才部안에 戔部를 합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才部는 聲符로 부수를 삼은 것으로 정통 자서와 다른 특수한 형식이다. 『五經文字』는 정통 자서와는 달리 楷書 字形의 正訛를 判別하고 나아가 정자 표준을 제시하여 어문생활의 규범화를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자서이다. 木·手(扌)牛·犭 등 편방이 변이되면 才와 자형이 같거나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才를 편방으로 구성된 글자들을 모아서 才部를 설립한 것이다. 비록 소속자는 모두 才를 성부로 하지만, 근사한 자형을 변별하고 상호 혼용을 제한하는 자양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적인 체례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아래에서 才와 戔을 구성 요소로 하는 글자에 대한 『玉篇』·『五經文字』·『字彙』의 수록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玉篇』 | | 『五經文字』 | | 『字彙』 | | 비고 |
|------|-----|--------|-------------------|------|-----|------------------------------|
| 部首 | 收錄字 | 部首 | 收錄字 | 部首 | 收錄字 | |
| 彡 | 豺 | 才戔 | 豺閉戔戔戔戔戔戔戔 戔戔在存 | 彡 | 豺 | 『玉篇』과 『字彙』는 모두 형부에 따른 귀부 체례를 |
| 門 | 閉 | | | 門 | 閉 | |
| 口 | 戔 | | | 口 | 戔 | |
| 木 | 戔 | | | 木 | 戔 | |
| 肉 | 戔 | | | 肉 | 戔 | |

16) 『說文』戈部에서 : “戔, 傷也. 從戈才聲.”라고 하였다. 즉 戔는 才를 得聲字로 하고 있다.

글자도 있으며, 또 聲符로 구성된 글자도 있다. 예를 들면 5牀·6羊·7米·8采·15缶·19一·27且¹⁷⁾ 등과 같은 부수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아래에서 牀部 상황을 들어 정리한다.

3.1. 牀部

『五經文字』 牀部에서 : “牀部, 音牆. 凡拾貳字, 貳字重文. 牀壯, 從牀從士. 凡裝莊之類皆從壯. 作壯者訛. 臧, 作者臧訛. 牆^將, 上說文; 下石經. 戕, 在羊反. 將^將, 上說文; 下經典相承隸省. 藏, 在郎反, 才浪反. 狀, 作狀訛. 牂, 音臧, 羊也. 見爾雅. 牂, 七羊反.”라고 하여, 牀壯臧牆戕將藏狀牂牂 등 1모두 10자, 12자형을 수록하고 있다. 『五經文字』 牀部에 수록된 10개의 개별자 가운데, 맨 첫자인 牀은 『玉篇』474牀部の 부수자이기도 하며, 또 『玉篇』157木部에서 : “牀, 仕良切, 說文曰安身之坐者. 床, 同上, 俗.”라고 牀이 수록되어 있다. 또 『字彙』 90 牀部에서 : “牀, 『說文』無牀字.....牀, 臥榻也.....六書正訛: 俗作床非”라고 牀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玉篇』은 木部에 『五經文字』와 『字彙』는 牀部에 귀속시키고 있다.

牀部는 『說文』과 『玉篇』에는 없으며, 『五經文字』에서 최초로 수립한 것으로, 후에 『龍龕手鑑』 平3과 『字彙』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五經文字』의 牀部는 성부에 입각하여 부수를 내세운 것인데, 후대 자서 역시 이와 같은 체례를 연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五經文字』 牀部 壯자 각주에서 : “壯, 從牀從士, 凡裝莊之類皆從壯, 作壯者訛.”라고 하였다. 壯자는 『玉篇』22士部에 수록되어 있다. 臧자는 『玉篇』 26臣部에 수록되어 있다. 牆자는 『玉篇』 206齋部에 수록되어 있다. 戕은 『玉篇』 262戈部에 수록되어 있다. 將은 『玉篇』 510寸部에 수록되어 있

17) 『五經文字』 且部에 徂沮組組詛助雖 등이 수록되어 있다. 余嘉錫이 『五經文字』 且部 수록자는 모두 聲符에 따라 귀부한 것으로, 且部는 聲符에 의거하여 부수를 설립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組자는 『說文』 且部에서 : “組, 禮組也. 從半肉在且上.”라고 하여 회의자이다. 즉 組는 且부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때 且는 形符이다. 余嘉錫의 설은 해서 자형에 기초한 것으로 정확한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徂는 『說文』 辵部에서 : “徂, 往也. 從辵且聲. 徂, 齊語. 徂, 退或從彳. 遽, 籀文從廡.”라고 하였는데, 이 때 且는 성부이다.

다. 藏은 『玉篇』 162艸部에 수록되어 있다. 狀은 『玉篇』 364犬部에 수록되어 있다. 牂은 『玉篇』 360羊部에 “牂, 羝羊也”라고 수록되어 있으나, 『字彙』에는 犭部에 “牂, 母羊也”라고 수록되어 있다. 羊을 가리키는데 왜 『字彙』에는 犭部에 귀속시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혹 『五經文字』의 오류를 답습한 것이 아닌가 한다. 斤자는 『玉篇』 260斤部에 수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犭部는 『五經文字』에서 처음 수립한 부수로 보이며, 따라서 그 수록된 글자는 『玉篇』에서는 다른 부수에 분산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字彙』에 이르러 그 가운데 牂과 牀자를 犭部에 수록하고 있다. 이는 『五經文字』의 영향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五經文字』의 ‘依聲分部’체계가 후대 자서에도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犭을 구성요소로 하는 글자에 대한 『玉篇』·『五經文字』·『字彙』의 수록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玉篇』 | | 『五經文字』 | | 『字彙』 | | 비고 |
|------|---|--------|------------|------|-----|---------------------------------|
| 牀 | 牀 | 犭 | 牀壯臧牆戕將藏狀牂斤 | | | 『字彙』에서 牀牂牆을 『五經文字』처럼 犭部에 귀속시켰음. |
| 犭 | | | | 犭 | 牀牂牆 | |
| 士 | 壯 | | | 士 | 壯 | |
| 臣 | 臧 | | | 臣 | 臧 | |
| 畜 | 牆 | | | | | |
| 戈 | 戕 | | | | | |
| 寸 | 將 | | | 寸 | 將 | |
| 艸 | 藏 | | | 艸 | 藏 | |
| 犬 | 狀 | | | 犬 | 狀 | |
| 羊 | 牂 | | | | | |
| 斤 | 斤 | | | 斤 | 斤 | |

위처럼 수록된 글자는 각각 형부가 다른데, 모두 성부로 부수를 세운 것이다. 犭部는 『說文』과 『玉篇』에는 없고 『五經文字』에 처음 보이는데, 『字彙』에서 牀牂牆을 『五經文字』처럼 犭部에 귀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五經文字』에서 : “牀壯, 從犭從士. 凡裝莊之類皆從壯. 作壯者訛.”라고 하여 무릇 裝莊같은 부류의 글자는 모두 壯을 구성요소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壯편방을 가진 모든 글자는 壯부분이 壯처럼 변이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𠄎은 전체 자형에서 성부 편방이나 부건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𠄎부분에 주로 변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부수로 내세워 동일 변이가 발생한 글자를 귀속자로 끌어 모아 변이된 편방과 부건에 각 별히 유의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이처럼 오류가 발생한 편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된 편찬체제가 부수 분류와 소속자 귀속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4. 部件에 의거하여 해당 부수에 귀속시킨 체례

부건에 의거하여 해당 부수를 귀속시킨 대표적인 것은 𠄎부이다. 『五經文字』中卷 𠄎部 각주에서: “𠄎, 音疾. 古疾字.” 라고 하였다. 『說文』段注 본본에서: “竊, 盜自中出曰竊. 从穴米, 离 𠄎皆聲也. 𠄎, 古文疾. 离, 古文僕”라고 하였다. 段注 ‘𠄎, 古文疾’에서: “𠄎, 古文以爲疾. 云二爲則本訓二十并, 古文假借以爲疾字也. 疒部疾下列古文, 仍與小篆不別, 蓋轉寫之誤.”라고 하였다. 『說文』段注本 疒(疒)部에서: “𠄎(疾), 病也. 從疒矢聲. 𠄎, 籀文疾. 𠄎, 古文.”라고 하였고, ‘𠄎, 籀文疾’의 段注에서: “从𠄎者, 古文疾也.”라고 하였고, ‘𠄎, 古文’의 段注에서: “各本篆體作 𠄎. 是仍與小篆無二. 今正. 攷竊篆下曰: 𠄎, 古文疾. 童篆下曰: 𠄎, 古文以爲疾. 此 𠄎爲古文疾之明證. 而集韻類篇皆曰: 𠄎, 古文疾. 𠄎, 籀文疾. 此丁度所見不誤之明證也. 其曰籀文作 𠄎, 又作 疾者, 乃當其時已有誤本同今本, 而因併入之, 又譌古爲籀也.”라고 하였다. 『增廣字學學隅』에서: “𠄎, 古疾字. 急也, 病也. 與 𠄎異”라고 하였다.

『說文』段注本 辛部에서: “竊(童). 男有皐曰奴, 奴曰童, 女曰妾. 从辛, 重省聲. 童, 籀文童, 中與竊中同, 从 𠄎. 𠄎, 以爲古文疾字.”라고 하였다. ‘𠄎, 以爲古文疾字.’의 段注에서: “當作古文以爲疾字. 𠄎本二十并也. 古文假爲疾字. 此亦不同音之假借也. 竊字下曰: 𠄎, 古文疾, 則不言以爲. 童從疾字, 亦取有皐之意.”라고 하였다. 『隸辨·入聲·屑韻』에서: “竊, 〈孔彪碑〉: 斯多草竊. 按: 『說文』作 竊, 碑省 𠄎, 經典相承用之,

今俗作竊, 非. 『字原』誤書作竊.”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五經文字』中卷卅部는 古文 疾자의 자형을 부수로 내세운 것이다.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 이는 변이가 흔히 발생하는 편방{부견}가운데 卅(卅)을 구성요소로 조합된 글자가 있으므로, 부득불 卅部를 건립하고 卅를 편방이나 부견으로 구성된 한자를 귀속시킨 것이다. 卅部의 수록자는 董歎燕庶度席黃등 일곱 글자이다. 그 가운데 董은 『玉篇』 11董部에, 庶度席은 『玉篇』 347广部에, 歎은 『玉篇』 111欠部에, 燕은 『玉篇』 389燕部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五經文字』는 변이 편방이 聲符이든 形符이든 部件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문제가 발생한 변이 편방이나 부견을 대표하고 아우를 수 있는 부수를 건립하여 동일 상황으로 변이된 글자를 한 곳에 회집하여 올바른 글자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자양학 정신을 부수 설립과 귀속자에 접목하고 구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結論

『五經文字』에는 정통 자서 체례에서 보면 분명히 A부수에 속하는 글자를 B부수에 배치한 경우가 발견된다. 그 주된 이유는 辨似體系에서연유한 것으로 두 글자의 형음이 비슷한 글자를 별자를 변별하기 위하여 형부가 비슷한 부수에 배치하여 상호 비교 변별을 시도한 것이다. 정통자서에는 있을 수 없는 체례이지만, 『五經文字』는 楷書 자형의 올바른 사용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字樣書이므로, 이런 체례를 채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체례에 속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五經文字』17宀部에서 말하길: “宀穴, 上人勇反, 從人宀食者, 見『周禮』; 下戶決反, 從宀從八.” 라고 하였다. 즉 宀穴이 자형이 근사하여 혼용되는 것을 변별한 것이다. 그런데 穴은 18번째 부수인 穴部의 대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辨似하기 위하여 17번째 부수인 宀部에 수록한 것이다.

이처럼 『五經文字』는 동자의 변별이든, 별자의 변별이든 간에 문자표준화 내지는 어문생활규범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체례를 과감하게 초월한 것이다.

穴자는 宀을 구성요소로 하지만 절대로 宀部에 소속된 글자는 아니다. 그러나 근사한 글자를 변별하는 자양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위치럼 宀部에 귀속시킨 것이다. 이는 편방의 변별을 위하여 성부이든 형부이든 부건이든 가리지 않고 해당 부수에 귀속시키는 것과 같은 체례이다. 이처럼 張參은 전편에 걸쳐서 오직 문자의 변별이라는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부수 표준이나 귀속체례를 준수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당시 張參은 國子監의 國子 司業으로, 지금의 국립대학 부총장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고, 당시 명유로 칭송되고 있었다. 특히 國子監 書學의 졸업 시험 과목이 『說文』·『字林』과 기타 자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장삼이 『說文』이나 『字林』의 부수 체례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자양학 이념을 최우선적으로 구현하고자 기존 정통 자서의 부수 체례보다는 오로지 정자 표준을 제시하는 측면을 중요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五經文字』의 부수 체례 즉 ‘유사한 자형의 부수 연이어 배열하기’·‘성부에 변이가 발생한 글자를 위한 依聲部首 건립’·‘변이가 발생한 부건에 따른 부수 건립’ 등은 모두 張參이 기확하고 설계한 楷書 규범화의 체계적인 유도 장치로 간주된다.

余嘉錫은 『四庫提要辨證·卷二·經部二·五經文字』條에서 『五經文字』의 부수가 形符에 의거한 것 외에, 聲符에 의거한 것도 있으며, 이는 『說文』分部가 形符에 의거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또 羊部 수록자 가운데 羝羴은 羊을 形符로, 洋翔은 羊을 聲符로 구성된 것처럼 分部의 저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비평하고 있다. 나아가 艸部 수록자인 董蕪燕庶黃 등처럼 전체 편방에서 일부를 잘라내어 部件으로 부수를 건립한 체례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혹평하였다. 그러나 『五經文字』는 정자 자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양저작이고, 또 태생 자체가 벽에 필사한 경전본문 가운데 편방이 변이된 글자 옆에 朱記된 편방 분석 주석을 짐록하여 소정의 체례에 의거하여 편찬한 문헌이다. 따라서 分部의 형식은 형부와 성부를 불문하고 변이된 편방에 초점을 두고 부수를 건립한 것이다. 부수 배열의 순서 역시 변이된 편방 자형의 근사성에 의거하여 연이어 배열함으로써, 이런 부류의 편방에 대한 분별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문자 混用이나 誤用 현상을 감소시키려는 字樣學 이념을 구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余嘉錫의 비평은

표면적으로는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五經文字』의 聲符 분류와 部件 분류라는 부수체계가 楷書 자형 規範化를 위한 목적과 이념을 구현하기위한 독특한 형식임을 간과한 것이다. 실로 『五經文字』의 독특한 부수 분류 기준과 소속자의 귀속 체제는 唐代 字樣學 이념을 구현한 정수이며, 그 ‘依聲分部’ 역시 후대 자서의 선택이 되는 등 중국 문자학사에 차지하는 공헌도가 지대하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東漢·許慎撰, 清段玉裁注, 『說文解字注』, 天工書局, 1987年.
- 梁·顧野王, 原本『玉篇』殘卷, 中華書局, 1985年.
- 梁·顧野王編, 孫強增修, 陳彭年重修,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年.
- 清·鮑廷爵『五經文字』, 『後知不足齋叢書』初編.
- 清·鮑廷爵『九經字樣』, 『後知不足齋叢書』初編.
- 明·梅膺祚, 『字彙』, 上海辭書出版社, 1991年.
- 余嘉錫, 『四庫提要辨證』, 中華書局香港分局, 1974年3月.
- 李孝定, 「論『玉篇』增刪『說文』部首—漢字新分部法初探」, 大陸雜誌, 第七十卷第三期.
- 施安昌, 「唐人對『說文解字』部首的改革」, 『古宮博物院院刊』, 1981年第4期.
- 李景遠, 「張參五經文字之研究」,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1990年2月.
- 李景遠, 「隋唐字樣學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 1997年6月.
- 中華民國教育部國語推行委員會編,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main.htm>

❖ ABSTRACT

The Radical-rule and Arrangement System of Characters of *Wu Jing Wen Zi*: a Rebuttal of Yu Jiayi's View

Lee, Kyeongwon

Compiled in 776 by Zhang Shen, *Wu Jing Wen Zi* was regarded as the epitome of model book for standardized regular script in Tang Dynasty. Following early works like *Shuo Wen Jie Zi*, Zhang Shen adopted radical-rule for the compilation of this work. 3,250 characters were selected from the Five Classics and 160 radicals were established. Yu Jiayi (1884-1955) harshly criticized the radical system of *Wu Jing Wen Zi* for being inconsistent and confusing. With careful review and analysis of examples from *Wu Jing Wen Zi*, this paper discusses the purpose of the compilation of this work, its unique radical-rule system, principles of arrangement of characters with the same or similar radicals, and the differentiation of variant characters. It further discusses the value of *Wu Jing Wen Zi* by its innovative radical-rule and effective differentiation of variant characters. It concludes with a rebuttal of Yu Jiayi's argument and restates the necessity of reevaluation of this work even to this day.

Key Words

五經文字, 余嘉錫, 字樣學, 특수 부수 체계, 경전 이체자, 규범화

Wu Jing Wen Zi, Yu Jiayi, Chinese orthography, radical-rule system, variant Chinese Characters(異體字), standardization(規範化)

논문접수일: 2015년 02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